

특별취재

정읍소방서 이배근씨 전북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서 '최우수'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지난달 28일 도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실시한 '2016년 전북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에서 개인부문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보지식인 대회는 국민맞춤형 정부 3.0시대를 이끌어 갈 핵심 정보지식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고 정보화역량을 개발하여 양질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도내 시·군청 등 기관별 자체대회를 통해 선발된 59명의 공무원이 출전한 가운데 정읍소방서는 개인평가 1위를 달성했다. 수상자 이배근 소방사에게는 도지사표창 및 상금 60만원이 수여된다. 김일선 서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대응능력 뿐만 아니라 정보화능력 향상에 도 노력하여 최상의 국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지난 18일 2017학년도 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김제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 행위 예방을 위한 선도 보호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수능시험 전후로 청소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좌절감과 해방감을 통해 이어지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 비행과 범죄발생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청소년 탈선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날 선도활동에는 경찰 시청, 교육청 등 약 40여명이 참여하여 캠페인 및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등을 했다.

황대규 김제경찰서장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생활불편사항처리나서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지난 18일 9개 반 27명으로 구성된 '생활불편사항 현장처리반'을 백산면 조종리 원조마을에서 사회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했다. 자원봉사자와 관련 공무원으로 조직되어 사회취약계층의 작은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살피고 해결하는 현장처리반은 지난 6월, 7월, 9월에 이어 네 번째로 운영되었다.

특히 현장처리반은 지난 9월에 운영되어 어르신 및 장애우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전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협조를 받은 '이동세탁사업'을 진행했고 겨울철 전기사용이 증가됨으로써 화재 발생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점검반과 패트 롤러방수대(회장 이길선)는 아침 일찍부터 출동해서 노후 되었거나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전기·가스·전선·콘센트·스위치 등을 교체하거나 꼼꼼하게 수리를 해줌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우·기초생활수급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민전을 기했다.

또한 건강검진, 가스점검, 하수·우수구·위험시설물 점검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진정성 있는 활동을 수행했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우들이 시행하기 어려운 이불세탁과 전기점검 및 보수 등 각종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1년 동안 현장처리반에 참여해서 시민들의 작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자원봉사자들과 관련 직원들을 격려한 후, "2017년에도 자치단체가 필요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해외(미국,캐나다,싱가폴,말레이시아,중국) 언론·여행업계 관계자 한국 주요관광지 및 축제 팸투어 실시 결과 김제지평선축제제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 회제다.

'지평선축제 기억에 남는 관광'

한국관광공사 주관 해외 언론·여행업계 팸투어 가장 좋은 평가 받아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해외(미국,캐나다,싱가폴,말레이시아,중국) 언론·여행업계 관계자 한국 주요관광지 및 축제 팸투어 실시 결과 김제지평선축제제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 회제다.

서울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부산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진주남강유등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김제지평선축제 등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와 글로벌 및 대표축제를 둘러본 결과다.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즐긴 막걸리 체험과 연날리기 체험, 풍물배우기 체험에서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쌍룡탈북퍼레이드에서는 직접 핫불을 들고 참가할 수 있었으며, 소원도 빌고 불꽃놀이와 어우러진 음악이 가을밤에 어울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가장 기억에 남는 관광지로 평가를 했고, 실제 여행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전략상품팀에 따라

면 '주요 방문상품' 가운데 김제지평선축제는 이미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일본과 중국에서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만큼 2017년도에는 동남아권을 대상으로 좀더 공격적인 공동세일즈를 실시로 해외관광객을 모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은, "김제지평선축제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글로벌 육성 축제로의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다음달 10일까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정읍시는 동절기에 대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일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시민 안전 재난 없는 안전한 공동주택 구현을 위해 점검에 나선다"며 "아파트 56개 단지, 연립주택 29개 단지, 공사 중인 아파트 3개 단지 등 대상이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민간합동 현장 점검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전기·가스 등 취약시설 및 소방

시설 점검과 함께 노출 배관·수도계량기 등의 동파방지 시설과 수목보온시설 설치 여부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등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중인 코아투런던 가이파트, 연지재건축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민간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질·성도부분의 붕괴 여부와 부실시공 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하고,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를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의무 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화재취약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한편 점검 결과 불안정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보수 보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철성 시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고 "동절기에 대한 공동주택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초경 전후 여성 청소년 건강관리나서

정읍시보건소, 여성 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 접종 등

정읍시보건소가 초경을 전후한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나섰다. 보건소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질병 예방을 돕기 위해 6월부터 건강여성 첫 걸음 클리닉 사업(이하 여성클리닉)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클리닉은 사춘기에 접어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와의 1:1 건강상담 서비스와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 접종 올해 지원 대상자는 2003.1.1.~ 2004.12.31. 사이 출생한 여성 청소년이며, 정읍지역 내 13개 사업 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최근 보건통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매년 5만명 이상이 진료 받고 있는 암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3,600여명이 새롭게 진단을 받고 하루 평균 2~3명이 숨 쉬는 환경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교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려고 '새벽 예불 및 108배', '별 바라기', '염주만들기', '술바달산책(자신에게 편지쓰기)', '스냅과피의 차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성 접촉이 있기 전 아궁(청소년기(19~14세)에 자궁 부암 예방접종을 받으면 그 이상 연령에서 접종의 것보다 면역 반응이 더 높다고 설명되었다. 한편 2003년생(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올해 12월 말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내년 2차 접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접종 희망자는 올해 안에 1차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여성클리닉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adc.gakr)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주소지에 관계없이 이용 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경찰서, 청소년 선도위한 개암사 템플스테이 체험활동

자녀속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가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동안 상서면 개암사에서 여성청소년계장 및 학교전담경찰관 9명, 청소년 10명, 인성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서 자체 선도 프로그램 '희망나무가꾸기'의 일환으로

로 개암사 템플스테이 체험활동이 실시됐다. 이날 체험은 일상에 지쳐있던 청소년들이 자연과 전통문화가 함께 숨 쉬는 환경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교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려고 '새벽 예불 및 108배', '별 바라기', '염주만들기', '술바달산책(자신에게 편지쓰기)',

'스냅과피의 차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체험에 참석한 청소년 박은 "템플스테이를 처음 간다고 했을 때는 지루할 것 같아 기대가 되지 않았는데,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 번엔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여성가족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

김제시 여성가족과(과장 최일동)에서는 지난 18일 오전 8시부터 8시 40분까지 비시벌 사거리에서 30여명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 직원들과 연합하여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 예방강화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 제고 및 피해이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였다.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날 캠페인에는 김제시 여성가족과 직원뿐 아니라 김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직원과 어린이집연합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원 및 김제사회복지관 김제사회복지관, 김제제일사회복지관 직원들이 동참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소장 박태만)는 모범·깨끗한맛·일반음식점 영업주 대상으로 지난 18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김제시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

관내 모범·깨끗한맛·일반음식점 대상 정보공유 및 친목도모

김제시보건소(소장 박태만)는 모범·깨끗한맛·일반음식점 영업주 대상으로 지난 18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타지역 우수 업소의 차별화되고 선진화된 음식문화를 벤치마킹 기회를 마련하고자 실시한 이번 견학은 충북 제천 모범업소 및 음식문화특별화거(천안병 천순대거리)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에 방문한 업소는 최상의 맛과 종업원들의 친절함 서비스로 미식가의 발길을 모으고, "음식이 보약이다"라는 음식 이념을 추구하는 사장님은 자가 재배한 신선하고 깨끗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강관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범 음식점이었다.

또한 제천의 대표 명소스 의림지와 박달재를 관광하며 고단한 몸과 마음을 힐링하며 업소들간의 소통을 하고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업주들 대부분은 본인 업소의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김제시 외식업 발전에 기여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고 업주들 간에 정보공유 및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다고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2009년부터 실시한 타지역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으로 업소에서는 친절서비스 등 영업주 마인드 함양 및 식품·시설 위생관리 측면에서 발전·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제시 보건소는 "이번 견학을 통하여 음식문화거기 조성을 위한 업소들의 자발적 협력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맛과 친절,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부분이 어떤건지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이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현대화사업이 본격 착수되어 노후 상수관 정비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다.

부안군 상수도 노후관 교체 본격 착수

맑은물 안정적 공급 기대

부안군이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현대화사업이 본격 착수되어 노후 상수관 정비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다.

환경부의 2017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에서 전국 20개 시도 지자체에 선정된 부안군은 한국환경공단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후 빠른 공사를 추진하기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군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12월 설계용역을 착수, 2021년 12월까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현대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상수도관 누수와 탁 물 발생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관계부처인 환경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설득한 김종규 부안군수의 전 방위적인 노력의 성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총사업비 388억 원(국비 257, 도비 86, 군비 75)을 투입 부안군 일원의 상수도 노후관교체(56.5km)를 통해 6만여 명의 부안군민과 매년 우리 군을 찾는 600만명의 탐방객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은 도서지역인 위도면의 맑은 수돗물 공급 차원에서 노후한 위도 정수장시설개량 사업비로 행정차치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위도면민 2천여 명과 탐방객 15만여 명의 맑은 물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금년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군비 1,315백만 원을 투입하여 부안군 일원(부안동진보안진서,졸포)의 상수도 노후관교체 9km를 완료하였으며, 하수관 거 매설사업과 연계하여 상· 하·시·계획 일원의 노후관교체 6km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